

<지난주 말씀/서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 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 분이 통치자요, 그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보호를 받고 그 나라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나라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했을 때 그 믿음이 실상과 증거로 다가옵니다. 그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이 없는 믿음은 틀린 믿음이고 다른 믿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는 영혼 구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 구원을 받는 믿음이 뭐냐 할 때 실상과 증거다, 그 걸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실상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의 실상, 방주의 실상, 유월절 양의 피의 실상, 임마누엘의 실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증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해방의 증거, 하나님 만나는 길의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게 확증된 자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확증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배경은 바로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틀린 각인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의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본론>

1.버릴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신6:4-9)

이게 무슨 말이나? 우리가 정말 붙잡고 있는 언약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정말 오직이 되었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은 24하라는 것입니다.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24하고 복음을 24하면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25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3집중이 나옵니다. 이 3집중을 하며

를 전달할 것이냐?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안되냐?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형성된 각인 뿌리 체질로 문화가 되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의 복음화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벤전2:1)

이 말은 각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벤전2:2)

갓난아기들같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기들이 무슨 계산을 하겠습니까? 아기들이 과거에 무슨 악독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전함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재창조된 피조물로서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길 바랍니다.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젖을 먹는 이유는 그 젖을 통해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먹습니다. 이것은 내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영이 자라길 바랍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맞보았으면 그리하라(벤전2:3)

이 말은 복음을 체험한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벤전2:4)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순전한 것을 사모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부모에게 나가야지,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네가 실상과 증거를 붙잡고 구원받은 게 맞다면 예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보배로운 산 돌이기 때문입니다. 산 돌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예수께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벤전2:5)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신령한 제사장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을 소통시키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일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벤전2:6)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었는데, 믿는 우리는 그 모퉁잇돌을 믿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벤전2:7)

불신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산 돌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하찮게 여깁니다.

▶또한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으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벤전2:8)

불신자와 신자는 이 산돌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믿는 자로 정해져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길 축원합니다.

2.찾을 것이 무엇인가?

▶과거를 버렸다면 이제 찾아야 합니다. 뭘 찾아야 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벤전2:9)

이게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언제 택했습니까? 영세 전에 택한 족속입니다. 나를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은 영세 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택한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인데 산돌 되신 예수를 통해서 택한 족속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작 택한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을 택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말그대로 얻어걸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 복수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어둠에게 빛을 선포하는 것, 어둠에 있는 자에게 답을 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벤전2:10)

과거에 나는 지옥의 백성, 마귀의 백성, 멸망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하고 전달해야 할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구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벧전2:11)**

이 말은 여러분 스스로가 육체의 정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 다른 말로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특히 해당되는 말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 말은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처럼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벧전2:12)**

정말 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답구나,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 답구나, 이런 답다, 다운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주가 오시는 날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답게 사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벧전2:13)**

세상의 제도가 내 맘에 안든다고 그걸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왜 지켜야 합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복음인데 불법이면 어때?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벧전2:14-15)**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자의 무식한 말을 막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악한 말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행실로 살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정체성을 붙잡아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미션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3. 세울 것이 무엇인가?

▶**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체질입니다.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면 우리 체질이 바뀝니다. 체질이 바뀌면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벧전2:16)**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합니다. 자유로 악을 가리는 사람들은 구원파입니다. 구원받았는데 막 살아도 된다, 우리는 이런 구원파가 아닙니다.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벧전2:17)**

오늘 성경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대통령을 까거나 무시하거나 해선 안됩니다. 심지어는 나와는 다른 왕일지라도, 그를 존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이 법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벧전2:18)**

종들은 무조건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벧전2:19)**

부당함을 당해도 그것을 가지고 대들거나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참으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각인이 바뀌면 가능합니다. 각인이 바뀌면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를 보십시오. 참 놀랍게도 안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면 다르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벧전2:20)**

죄 짓고 벌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벧전2:21)**

이것을 위해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참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고난을 참으시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본입니다. 다른 것 따라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벧전2:22)**

왜 그 분을 따라가야 합니까? 죄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벧전2:23)**

얼마나 그를 존중하고 욕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부당하게 공격을 당해도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헐박하고 공격하는 그들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지금 저들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벧전2:24)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죽어야 합니까? 나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벧전2:25)**

우리는 이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었던 사람들입니다. 언제 우리가 나타나서 덮칠지 모르는 멸망의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을 만났습니다. 세상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연출하시는 감독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감독이 되어 여러분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념비를 남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을 구원의 비밀이요, 찾아야 할 정체성입니다. 내 인생의 드라마를 찍으시는 감독에게로 돌아가라.

《결론》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오래된 각인입니다. 나, 나의 것, 내 주장, 내 소견 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버리고 나면 오직 산돌 되신 예수께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답을 줄 수 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24의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25입니다.**

▶**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을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한 오직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목자이자 감독이신 예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작품 남기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